

# LG화학, 위기 장기화 가능성 크다!

박진수 부회장, 기본에 충실한 해로 ... 유망 신규사업에 과감히 투자

LG화학은 새해를 맞아 위기의 상시화에 대비해 기본에 충실하고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 박진수 부회장은 1월2일 시무식에서 “앞으로 경영환경은 위기 그 자체이며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수 부회장은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력 사업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자고 당부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에서 기술기반 사업과 프리미엄제품을 확대해 저가의 중동산·셰일가스(Shale Gas) 베이스 석유화학에 맞서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는 차세대 소재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유망 신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잠재력이 있는 협력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내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1/02>